


(참고자료-참조6)



삼평동 641번지 그것이 알고싶다

성남시의회
형금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 벤처기업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사퇴 한달전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매각 웬말”

**이재명시장 민간매각 MOU
인구급증 분구 역론 모르나
성남시의회 野의원을 반대**

6·13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의 분구(分區) 역론이 부각되면서 성남시가 추진 중인 판교구 청사 예정부지 매각에 대해 성남시의회 여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판교구 청사 예정부지(분당구 삼평동 641) 매각 부의안은 시의회에서 2차에 부결된 상태다.

시의회 자유한국당 등 여당 의원들은 19일 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추진해나선 판교구 청사 예정부지 민간 매각을 반대하며 판교구 신설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노한연 의원은 “분당구 주민이 50만 명이 넘었다”며 “이재명 시장은 판교구청 예정부지를 민간 기업체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판교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분당구는 대장동 개발과 주거용 오피스텔 증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서원지구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인 율동·동원동 아파트 개발 등으로 앞으로 연구기 계획급

수적으로 증가 될 전망이라 분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배른마매당 이기원 의원도 “판교 개발도 재 끝나지 않았는데 공공부지를 매각한다는 발상은 매우 우책임한 처사”라며 “판교구청 부지는 분당 판교의 도시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땅이다. 이 시장이 (경기지사 출마)시와 한달 전 판교구청에 들어설 공공부지를 매각한다는 건 지금까지 여당이 주장한 ‘땅 팔아서 부채를 메우겠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재호 대표의원은 “한편으로 무상복지, 다른 한쪽으론 재원부족을 이유로 민간 투자

유치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은 논리가 상충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12일 (주)엔씨소프트와 구청사 예정부지(2만 3천여㎡)에 “엔씨소프트 글로벌 R&D센터(가칭)”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 시장은 협약식에서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족성 강화”라며 “기업유치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일면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되고, 다음 해 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성남시의회 4기 1회 1차 회의록 2018. 10. 26. 14:00 ~ 15:00